

“만인의 행복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하나”

원불교 100주년...장덕훈 신임 광주전남교구장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지난 1916년 영광에 살던 26세 젊은 청년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이 원불교를 창시하면서 내걸었던 표어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력 덕에 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점점 정신은 피폐해져 가는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다. 원불교는 오는 5월1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존산 장덕훈(58) 신임 교구장을 만나 원불교 소개와 100주년 의미를 들어봤다.

원불교의 기본 교리는 진리 추구다. 어느 종교와는 다르게 특정한 숭배 대상이 없이 개인 수양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집중한다.

장 교구장은 소태산 대중사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원불교 정신을 설명했다. 소태산이 전북 부안 실상사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노부부가 ‘며느리가 불효를 한다’며 불공을 드리러 왔다. 이에 “그대들은 산부처 대신 등상불(等像佛)에게 불공을 드리나. 불상 대신 며느리에게 잘해주라”고 당부했다. 며칠 뒤 노부부는 며느리가 효부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왔다고 한다.

“원불교는 교육·인권·지식·생활이 평등해야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만 소태산 대중사께서는 배움에 있어서 만큼은 우자(愚者)와 지자(知者)를 나누라고 하셨죠. 학벌, 나이, 권력, 가문을 떠나 우자는 지자에게 배워야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필요한 말이예요. 국회의원들이 체면을 버리고 국민에게 배우면 지자가 되서 나라를 잘 꾸러갈 텐데 아쉽습니다.”

영광 출신인 그는 제주교구 사무국장, 울산 배내정소년수련원장, 부산 금곡정소년수련관장을 거친 후 지난

1월 처음으로 고향지역에 부임했다.
“통영에서 13년, 부산에서 20년 등 다른 지역에서 오래 있었는데 고향에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하지만 세월호, 5·18 등을 생각하면 종교인으로서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오는 4월16일에는 광주전남교구 주최로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 교구장은 원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역설했다. 만인의 행복이다. 무등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 실천방식과 교리가 다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저는 원불교가 원불교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척이 절대 없어야 하죠. 타종교 성직자들과도 교류를 자주하고 일반인 대상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예요. 종교는 신도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오는 5월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100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25일부터는 성지 개벽순례, 백낙정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 천도재 등을 진행한다. 또 영광 영산성지 인근에 대형 일일성 대각비를 설치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다.

특히 지난 7~8년 전부터 9개분교를 조직해 전반적인 제도와 활동사항 점검을 진행중이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는 축하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지난 100년간 원불교는 큰 발전을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이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경산 중법사(원불교 최고 직위)는 ‘지극히 당연한 것도 의문을 가져라’고 하셨죠. 다시 생각하고 되돌아 보는 게 원불교 정신입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든 사람 인권·생활 평등해야
4월16일 세월호 추모제 열 것”

5월1일 서울서 100주년 기념식
개벽순례·학술대회 등 열어
새로운 100년 제도·활동 점검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가 깨달음을 얻은 영광 원불교 영산성지 노루목에 세워진 만고일월비. <원불교 제공>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 영광서 창시...신도 120만 한국 4대 종교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가 영광에서 창시한 원불교는 현재 570여 개 교당이 있다. 신도는 고도, 입교자, 가족 등을 합치면 120만명에 달한다.

교명 때문에 불교의 한 교파로 오해 받기도 하지만 자생종교로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4대 종교로 꼽힌다. 소태산 대중사는 원불교를 만들며 여러 종교 경전을 섭렵한 끝에 불교와 가장 흡사하다는 결론은 내리고 명칭을 지었다. ‘원’은 진리를 형상화한 모습을 뜻한다.

원불교 최고 직위는 종법사, 성직자는 교무라고 부른다. 교무는 전

무출신이라고도 하며 몸과 마음을 공중에 바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결혼은 자유롭지만 독신인 교무를 경남·정녀라고 지칭한다.

원불교는 원광대학교·영산선학대학교·원불교대학원대학교 등 8개 대학기관과 원광고등학교 외 7개 중·고교, 대안학교 11개, 136개의 유아교육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또 종합병원·한방병원·보화당한의원 등 30개 의료기관, 한방 건강 TV·FM라디오 원음방송·원불교신문·월간원광 출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3월 봄맞이 프로그램

3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씬’ 20·21일, 지역 예술인 공모작 ‘광인’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봄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브런치 콘서트 씬’이다. 일상에 편안한 ‘씬’을 제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오전 11시 열리는 행사로 3월에는 특별히 3일과 30일 두차례 공연을 진행한다. 3일 오전 11시 극장2에서 열리는 첫번째 무대는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금난새 지휘자(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가 꾸미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19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지난해 문화전당이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커뮤니티 원도우’ 선정작 ‘광인’ 공연이 20일(오후5시), 21일(오후 3시) 두차례 예술극장 2에서 열린다.

그동안 광주의 이야기를 꾸준히 영글어 담은 ‘필름 에이지’(대표 윤수안)가 진



금난새

행하는 ‘광인’은 ‘오월’에 관한 두 편의 단편 영화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품이다.

첫 번째 단편 ‘홍어의 맛’은 홍어를 소재로

아버지와 딸, 광주와 대구, 1980년과 2015년이 소통하는 작품이다. 대구에서 음식 기자로 활동하는 혜진이 홍어를 취재하기 위해 광주에 도착하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두 번째 단편 ‘따도는 땅’은 광주에서 다큐감독으로 활동하는 윤철이 5·18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겪게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작품 사이 사이 홍어를 파는 남녀가 등장하는 퍼포먼스와 라이브 연주, 기원곡 등이 펼쳐진다.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윤수안·추말숙·조재형·우인범·김예경·고강석씨 등이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28일까지 김우성 개인전



‘투명한 안부’

김우성 작가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 ‘투명한 안부’를 주제로 28일까지 개인전을 개최한다.

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그리는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노래방, 찜질방, 카페 등에서 본 사람들을 화폭에 등장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리얼리즘을 작품활동 근간으로 삼았다. 노인들의 앙상한 갈비뼈, 손가락 사이 그립자, 구겨진 옷 주름 등 작나라라게 우리 삶을 그렸다.

작품 ‘하공’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쥔

채 잠들어 버린 회사원이 나온다. 풀여튼 벡터이, 흘러내린 안경 등을 통해 고단한 삶이 그대로 전해진다. ‘투명한 안부’는 목욕탕 풍경이 소재다. 핸드폰을 옆에 놓고 수건으로 하반신만 가린 채 잠자고 있는 아저씨를 그렸다. 작가는 배경을 어둡게 하고 인물은 세밀하게 그려 관람자 시선을 소재에 집중시킨다.

김씨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광인일기’(2001), ‘비 개인날의 오후’(2013) 등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220-50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BS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는 메시지 2016.02.25

레터스투갓

Letters to God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천국으로 보낸 편지가 당신에게도 배달됩니다! **전체관람가**

단체할인 문의 광주CBS 062-376-8507 전남CBS 061-901-1000

2월 25일 광주 롯데시네마 (광주점, 수완점, 충장로점)
순천 신대메가박스, 여수 메가박스 대개봉